



미술계 시어머니, 죽비를 내려치나...

미술계 인사들이 미술 정보에 막힐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김달진 소장에게 물어보라.” 모든 미술 정보는 김달진(47·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으로 통한다고 할 만큼 김소장은 방대한 미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1982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2년 동안 모은 미술 자료가 그의 좁은 사무실을 빼곡이 채우고 있다.

올해 1월 김소장은 미술전시자료 수집 노하우를 활용해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월간 전시 정보 무가지 발행을 시작했다. 12면으로 시작한 잡지는 이제 24면으로 증면해서 제법 짙을 갖추었고 수지타산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미처 신지 못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달진닷컴(www.daljin.com)을 통해 제공한다.

수익 구조가 안정되자 김씨는 또 다른 시도를 했다. 잡지에 미술계 쓴소리를 본격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미술계 시어머니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문제 의식에 공감한 중견·원로 평론가들이 기꺼이 원고료 없이 글을 써주고 있어서 〈서울 아트 가이드〉는 미술계 ‘죽비’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